주최: 한국범보전기금 · 피닉스기금

2019년 제7회

“한국-러시아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

안 내

후원: 환경부 · 국립생태원 · 에버랜드 · 생명다양성재단

한국의 『사단법인 한국범(虎)보전기금』과 러시아의 『피닉스기금』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 국립생태원, 에버랜드, 생명다양성재단이 후원하는 “제 7 회 한국-러시아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 공모가 “한국호랑이·한국표범의 하루”를 주제로 2019 년 3 월 14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열립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시베리아호랑이, 아무르호랑이는 모두 우리 땅에 살았던 한국호랑이를 말합니다. 한반도에서는 호랑이가 사라졌지만, 한국호랑이의 일부가 지금 극동러시아 지역에 약 500마리 정도 남아있고, 이들을 러시아에서는 ‘아무르호랑이’라고 부릅니다. 한국표범도 한반도에서는 사라졌지만, 러시아-중국-북한 접경지역에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숫자가 약 50-70마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겨우 살아남은 극동러시아의 한국호랑이와 한국표범도 밀렵꾼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 먹이동물 감소, 서식지 감소로 인하여 또 다시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범보전기금』, 러시아의 『피닉스기금』은 이렇게 사라져 가는 한국호랑이·한국표범을 보호, 보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밀렵 방지 활동을 통해 이들의 멸종을 막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범보전기금』은 멸종위기에 처한 한국범(한국호랑이와 한국표범)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작된 일반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한국범보전기금은 러시아·중국·북한 접경지역에 간신히 살아남은 한국호랑이와 한국표범의 서식지를 넓히기 위한 생태적·사회적 연구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호랑이와 표범이 처한 위기를 알리는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성 어린 후원금을 모아 피닉스기금과 같은 극동러시아·중국의 호랑이·표범 보전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닉스기금은 호랑이와 표범의 서식지에서 밀렵 감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한국호랑이·한국표범을 알리는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닉스기금은 그 일환으로 매년 어린이 호랑이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한 그림을 모아 달력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달력은 한국과 러시아 어린이의 그림 작품을 같이 실어 출판될 예정입니다. 한국범보전기금은 한국 어린이 수상 작품만을 모아 별도로 전시회를 갖고 엽서나 달력 또는 월페이퍼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사라져 가는 한국호랑이·한국표범에 대하여 배우고, 한국 어린이들의 호랑이·표범에 대한 관심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호랑이·한국표범에 관심 있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이 수여됩니다 (최우수작 1명에는 환경부장관상 수여. 총 35명 수상 예정).

1. 행사 소개

(사)한국범보전기금, 피닉스기금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 호랑이그리기대회는 어린이들에게 한국호랑이·한국표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호랑이·표범 보호와 보전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펼치는 그리기 대회입니다. 수상한 어린이들의 그림은 러시아에서 한국표범과 한국호랑이를 보호하고 있는 피닉스기금에 포함되어 세계적으로 배포됩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 에버랜드, 생명다양성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는 본 대회에서 최우수작품 1점은 환경부장관상을, 우수작품 4점은 국립생태원장상, 15점은 가작 (에버랜드상 예정), 15점은 입선 (생명다양성재단상 및 한국범보전기금상 예정)을 받게 됩니다.

2. 행사 개요

- 주최: (사)한국범보전기금, 피닉스기금
- 후원: 환경부, 국립생태원, 에버랜드, 생명다양성재단

- 주제: 한국호랑이·한국표범의 하루(한국호랑이·한국표범의 생태적 일상에 대한 묘사)
- 절차: 접수 기간 동안 우편으로 응모한 작품 중 어린이가 **직접** 그린 작품으로 **창의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작품**을 심사위원이 선정

3. 응모 자격 및 방법

- 응모 대상: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 규격: A4(29.8cm x 21.0cm) (**규격 준수**)
- 재료: 자유 형식(페인트, 크레파스, 수채화, 파스텔 등)
- 접수기간: 2019년 3월 14일 ~ 2019년 3월 31일
- 접수방법: 홈페이지 참가 접수 후 응모신청서를 출력하여 작품(원본) 뒷면에 부착 후 아래 주소로 2019년 3월 31일까지 우편 발송하여 제출(3월 31일 발송분까지 인정)
- 홈페이지: www.drawtiger.online
- 주소: (우)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85동 802호 (사)한국범보전기금 사무국
- 문의: savetiger@naver.com

4. 행사 일정

- 우편 접수 기간: 2019년 3월 14일(목) ~ 2019년 3월 31일(일)
- 수상자 발표: 2019년 4월 중 한국범보전기금 홈페이지에 공지
- 시상식: 2019년 5월 중 예정으로, 추후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5. 수상자 특전

최우수작품(1명)에는 환경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우수작품(4명)에는 국립생태원장상, 15명에는 가작, 15명에는 입선이 수여됩니다. 총 35명의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이 수여되고, 피닉스기금에서 발행하는 러시아어 달력에 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5명의 수상자 중 최종 선정된 그림만 달력에 실립니다.

한국호랑이·한국표범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래 웹사이트들을 참고해 주세요:

(사)한국범보전기금 웹사이트

블로그: http://savetige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tlcf

그리기대회: https://www.drawtiger.online

피닉스기금 웹사이트:

http://fundphoenix.org/

아무르표범·아무르호랑이 보전기구 WildCats Conservation Alliance 웹사이트:

https://conservewildcats.org

※ 2018년 제6회 한-러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 시상식 보기

안내: http://savetiger.kr/221265668362

6. 작품 응모시 유의사항

가. **작품 응모시 아래의 응모 신청서 양식에 이름(국문, 영문), 생년월일(만 나이),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달력 수령용), 소속기관명(학교, 미술학원 등)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에는 영문 이름과 나이가 기재됩니다.

나. 작품 전면에 이름, 나이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는 뒷면에 기재해 주세요.

다.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디즈니 등 만화 및 영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금함).

라.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학생 자신이 그린 것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는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 중 하나입니다.

마. 한 학생당 한 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바. 모든 참가 작품의 저작권은 한국범보전기금에 귀속되며, 응모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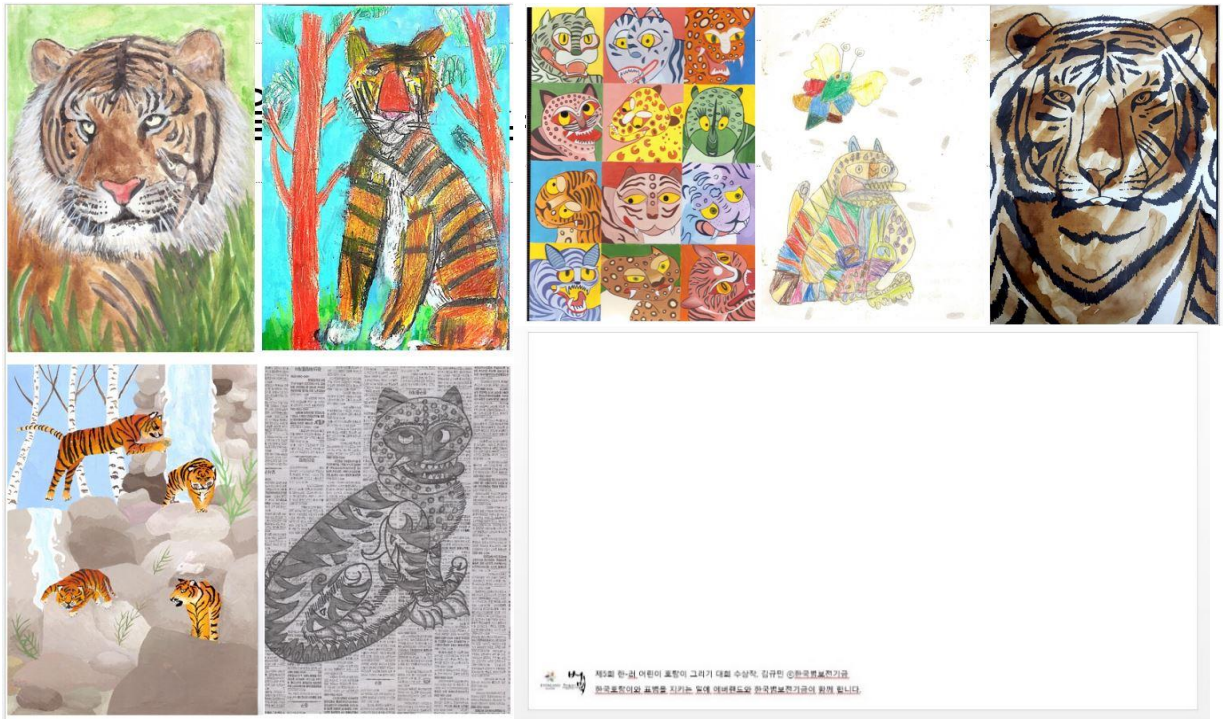
사. **A4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정보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가 책임**집니다.

아. 홈페이지에서 참가접수 후 응모신청서 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작품에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단, 홈페이지 참가 접수는 필수: www.drawtiger.online)

➢ 2019 제7회 한-러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는 화장품 브랜드 러쉬의 '채러티팟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두만강 접경지역 호랑이 보전 캠페인'과 함께 진행됩니다.

☞ 본 안내문과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savetiger.kr

www.drawtiger.online

<한-러 어린이 호랑이 그리기 대회> 수상작으로 만든 엽서 중 일부